

삼성, V자형 LCD TV 시리즈 첫 100만대 돌파



전세계적으로 1000만대 이상 팔린 벤츠폰, 블루블랙폰 등 휴대폰에서 최고의 디자인 명품 시리즈를 내놓은 삼성전자가 디지털 TV에서도 단일 디자인으로 첫 밀리언 셀러를 탄생시켰다.

삼성전자의 'V'자형 LCD TV 시리즈(일명 로마 시리즈)가 1월 31일 평판 TV로는 단일 시리즈로서 첫 '밀리언 셀러'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2월부터 양산하기 시작한지 12개월 만의 일이다.

특히 지난해 세계 LCD TV 시장 규모가 1960만여 대(아이서플라이 자료)로 추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 세계에서 판매

된 LCD TV 20대 중 1대가 로마 시리즈인 셈이다.

로마 시리즈는 기존 'TV는 네모'라는 고정 관념을 벗어나 제품 아래 부문을 완만한 V자로 처리하여 타 제품과 시각적인 차별화를 구현하고 제품 하단부에 슬림형 스피커를 채택, 콤팩트한 외관을 갖추어 중대형 LCD TV에서 인테리어 요소를 부각시킨 명품 디자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LG전자, 中 춘절(春節) 마케팅 강화



LG전자가 춘절을 맞아 이영애를 모델로 한류를 이용한 판촉 활동을 중국 전역에서 펼치고 있다.

LG전자가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을 맞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춘절 마케팅'에 본격 나서고 있다.

LG전자는 본격적인 춘절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를 겨냥해 1월 초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 PDP·LCD TV, 양문형 냉장고, 드럼세탁기, MP폰, 카메라 폰 등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춘절 마케팅활동에 나선다.

LG의 춘절 마케팅은 다음달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LG전자는 이번 춘절 마케팅 행사기간 동안 한류 열풍의 주인공인 탤런트 이영애씨를 모델로 한 '이영애 POP물'을 전국 매장에 설치하는 한편 LG의 프리미엄 제품을 사는 고객에게는 여행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나눠 주며, 각 지역별로 무상수리 서비스 행사도 펼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설"에 해당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집단적 인구 이동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춘절(春節)은 올해 귀성인파 규모가 처음으로 연 2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춘절연휴 기간은 일년 중 구매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최대의 특수 기간으로 이 기간 판매 실적은 한해 동안의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No	제목	일지
1	삼성전자 지상파 DMB폰 상용화 지상파 수출	2006.02.06
2	삼성전자, 세계 최초 Nemko RoHS 인증 획득	2006.02.03
3	삼성전자, '특허 초일류 경영' 본격화	2006.02.02
4	삼성전자, LCD 4년 연속 세계 1위	2006.02.01
5	삼성전자 고객만족 경영에 브라질이 감동	2006.01.31
6	삼성전자, '영 언론 올해 최고 GSM휴대폰'	2006.01.26
7	S&P社, 삼성전자 신용등급 상향 조정	2006.01.26
8	삼성전자, '고객만족 초일류 기업' 선언	2006.01.23
9	佛언론, 삼성전자 '카드폰' 격찬	2006.01.19
10	삼성 애니콜 중국 준주 브랜드 선정	2006.01.18
11	삼성전자, 4분기 매출 사상최대 15조 5,200억원	2006.01.14
12	삼성전자, 서울시내버스에 모니터 대량공급	2006.0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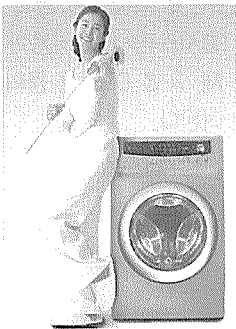
LG전자 주요 뉴스 (www.lge.co.kr)

No	제목	일지
1	LG전자, '골드라인 초콜릿폰' 공개	2006/02.02
2	LG전자, '휘센 공기청정기 신제품 출시'	2006.02.01
3	LG전자, 프랑스 최고 요리사와 공동마케팅 계약	2006.01.27
4	LG전자, 소외 아동 돌기에 발벗어	2006.01.27
5	LG전자, 中 춘절(春節) 마케팅 강화	2006.01.26
6	LG전자, 4분기 매출 6조1,821억원 달성	2006.01.24
7	LG전자, 유럽 프리미엄 가전시장 공략 본격화	2006.01.24
8	LG전자, 빌트인 가전 '디오스' 브랜드 통합	2006.01.23
9	LG전자, 타임머신 TV 熱風으로 雪原 녹인다	2006.01.21
10	LG전자, 바이브(Viiv) 탑재 신개념 PC 출시	2006.01.19
11	LG전자 휴대폰, 'IPV6 Gold' 인증 획득	2006.01.16
12	LG전자, '휘센 에어컨 2010년 100억불 달성'	2006.01.13

중국 내수 매출을 예측하는 단초가 되는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대우일렉, 가전 3대 브랜드 부활

대우일렉이 올 들어 회사와 제품 브랜드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자회사의 기업통합 이미지(CI)도 '대우일렉'으로 통일하는가 하면

프리미엄 생활가전 브랜드인 '클라씨' 광고 비중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최근 자회사인 대우전자서비스의 사명을 대우일렉서비스로 바꾸고, 전국 65개 서비스센터의 간판을 모두 교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옛 '대우전자'라는 사명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광고 홍보담당 임원을 역임했던 이승창 사장은 지난해 취임과 함께 법인명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줄여 대외적으로 '대우일렉'으로 통일했으며, 이번 서비스 자회사의 CI 개편도 직접 지시했다

대우일렉은 이와 함께 웰빙가전 통합 브랜드 '클라씨'도 삼성전자의 '하우젠'이나 LG전자의 '디오스' 처럼 고품격 브랜드로 육성기로 했다.

지난해 양문형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에 이어 드럼세탁기까지 '클라씨' 브랜드로 출시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대우일렉은 이를 위해 올해 집행할 광고의 70% 이상을 '클라씨' 제품으로 구성하는 한편 그동안 '웰빙'을 강조한 광고 컨셉트에 또 다른 고품격 이미지를 더한 광고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LG엔시스, 신성장엔진 확정...올 매출 3200억 목표

LG엔시스가 4대 신성장엔진을 확정하고 올 매출 3200억원 달성에 나선다.

LG엔시스는 사무실에서 개방형 시스템 기반 솔루션, 전자태그(RFID) 기반 USN(유비쿼터스센스네트워크), 재난복구(DR), 서비스 컨설팅을 4대 신성장엔진으로 결정했다고 1월 9일 발표했다.

LG엔시스는 또 네트워크 침입방지 사업을 기반으로 보안 전문업체로 입지를 굳히고, 최근 개발을 완료한 은행 ATM기기용 CDM을 미국·일본·중국·인도·브라질 등 해외 전 지역으로 수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LG엔시스는 이와 함께 금융시스템사업부 내 개발실과 생산실을 개발담당과 생산담당으로 승격하고, 전략기획담당 조직에 USN사업개발그룹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또 전략기획담당에 정병선 전 개발실장을, 개발담당에는 장종화 전 전략기획 담당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 개편도 마쳤다.

LG엔시스는 지난해 303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에서 서버 등 시스템사업부 매출이 전체의 49%, 금융기기와 솔루션·서비스 매출이 각각 20%와 31%를 차지했다.

삼화콘덴서, 말레이시아전력청에 콘덴서뱅크 공급

삼화콘덴서공업이 국내 최초로 말레이시아 전력청에 콘덴서 뱅크를 수출했다.

삼화콘덴서는 말레이시아 전력청(TMB) 암팡(Ampang) 변전소 프로젝트의 콘덴서뱅크를 턴키로 수주, 지난해 12월말 성공리에 납품 완료했다고 2월 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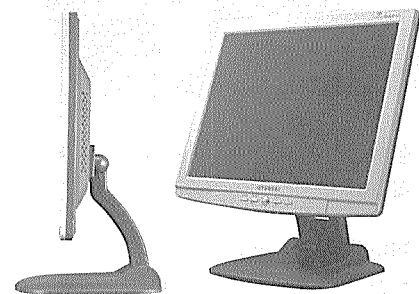
삼화콘덴서는 전력품질기술(주)와 공동으로

뱅크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퓨즈형(Fuse Type) 콘덴서 자체 제작기술로 생산, 납품했다. 용량은 132kV 3상 50Hz 60Mvar이다.

콘덴서 뱅크는 콘덴서, 리액터, 방전코일, 지지대, 보호시스템 등을 일체화한 시스템으로서 전력계통의 무효전력 보상 기능을 수행한다.

삼화콘덴서는 "이번에 공급된 콘덴서는 국제품질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삼화콘덴서의 품질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으며 또 이번 공급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대이미지퀘스트, 러시아에 LCD 모니터 수출계약



디지털 디스플레이 중견 기업인 현대이미지퀘스트는 러시아 전문 유통사인 HMM사와 4천3백만 달러(한화 약 438억원) 상당의 LCD모니터 및 모니터 TV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2월 2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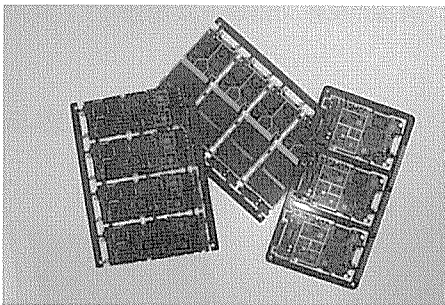
이번 계약에 따라, 현대이미지퀘스트는 LCD 모니터 18만5천대, 모니터 TV 1만5천대 등 총 20만대를 2005년말부터 1년간 HMM사에 공급하게 된다.

HMM사로 나가는 LCD 모니터는 한국의 김천공장 중국 천진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되어 현대브랜드로 러시아 전역의 5천 개 대리점들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또 현대이미지퀘스트는 HMM사와 함께 내년 5월 열리는 SVYAZ EXPO(스바즈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을 필두로, 딜러 컨퍼런스 실시와 적극적인 광고 등을 통해 러시아 시장공략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이미지퀘스트는 러시아 시장확대를 위해 대중적인 제품과 프리미엄급 고급 제품으로 양분해 일반 소비자 및 상업용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예정이다.

삼성전기, 친환경 기판시장 본격 공략



삼성전기가 친환경 기판 시장의 본격적인 공략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친환경 기판이란 완제품 상에 환경 유해물질이 없는 기판을 말하는 것으로, 삼성전기는 전자기기 및 부품에 환경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는 범세계적인 추세에 대응코자 기판 전문 생산 단지인 부산사업장에서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했다.

삼성전기는 이 친환경 기판이 기존 기판에 사용되던 환경 유해물질인 할로겐 계열의 브롬(Br)을 대신해 인(P) 계열의 난연제를 사용함으로써 기판 자체가 환경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납보다도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열특성이 향상되어 무연 솔더링(납을 사용하지 않는 솔더링)까지 가능한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기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양산

에 돌입하였으며, 현재 일부 휴대폰 업체에 승인이 완료되어 대량 공급을 추진중이다.

특히, 삼성전기는 올해 7월부터 EU의 WEEE, RoHS 법안 시행으로 유럽향 휴대폰 내에 친환경 기판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07년부터는 타 전자기기까지 확대 적용될 것에 대비해 부산사업장 내에 친환경 기판 생산라인을 별도 구축하여 시장을 선점해 나갈 방침이다.

LS전선의 경쟁력은 협력회사의 품질에서



LS전선이 협력회사와의 품질, 기술 그리고 경영 전반에 걸친 파트너십 강화 및 상호 Win-Win 전략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품질인증제” 행사가 2월 2일 구자열 부회장을 비롯 최명규 CTO(전무), 우수 협력회사 대표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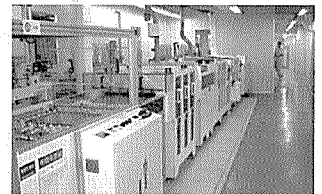
이번 협력회사 품질인증 수여식에서 최우수 협력회사에 주는 “플래티넘 파트너(Platinum Partner)”에는 해당 기업이 없었으며, “골드 파트너(Gold Partner)”에는 습식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생산하는 진명프리텍과 컨넥터 등을 공급하는 대보기연 등 11개사가 Q-Partner 인증서를 받았다.

이번 수여식에서 구자열 부회장은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No. 1 동반자로 모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혁신을 체질화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자”며, “협력회사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품질인증마크인 “Q Partner”는 최우수 협력회사에 주는 ‘Platinum Partner’와 우수기업에 주는 ‘Gold Partner’ 두 종류가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최우수/우수 협력회사 임직원들에게 해외연수 및 사내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품질시스템 인증비용과 거래대금의 현금결제, R & D 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수그룹, PCB 사업 궤도에 올랐다

이수그룹은 PCB 시장 진출 10년 만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이수그룹의 인쇄회로기판(PCB) 사업이 본격도에 올랐다.

최소 20년 이상 한 우물을 판 경쟁사와 달리 이수그룹은 PCB 시장에 진출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았다. 이수그룹은 지난 96년 남양정밀을 인수, 이수페타시스를 만들면서 PCB 사업을 시작했고 작년 말 유로써킷의 설비를 일괄 구매해 엑사보드를 설립, PCB 사업을 확대했다. 최근 엑사보드는 큰 폭의 성장을 일궈냈으며 이수페타시스도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 내년 전망을 밝게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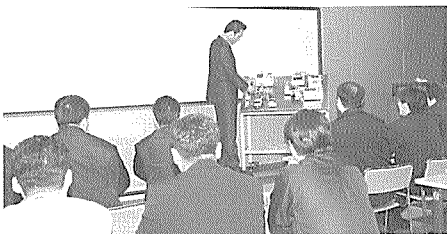
엑사보드는 작년 매출 210억원에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올해 들어 LCD용 PCB에 사업을 집중, 지난 4월 정상 생산을 시작한 이후 8개월 만에 매출 200억원을 달성했다. 아직까지 흑자 전환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내년에는 큰 폭의 매출 성장과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엑사보드는 “효율적인 제품생산을 위해 그

를 차원에서 운영하던 ERP를 도입하고 경영혁신활동을 편 결과 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올랐다"며 "이 추세면 내년도에는 500억원까지 매출 신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트워크 장비용 PCB와 휴대폰용 연성회로기판(FPCB)이 주력인 이수페타시스는 인수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작년 1580억원의 매출과 12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주요 PCB 업체로 탈바꿈했다.

오토닉스, 기술 교육관 개관



산업자동화 전문기업 오토닉스가 3월 1일 산업 자동화 솔루션 관련 『오토닉스 기술 교육관』을 오픈하고, 실무 중심의 기술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오토닉스는, 1년여의 준비 끝에 경기도 부천시 테크노파크 내에 위치한 동사 영업본부 내에 기술 교육관을 개관한다. 동 교육관은 50여평의 공간에 약 2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제작한 총 10대의 데모키트 등 실습 기자재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청각 수업을 위한 프로젝터 및 각종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별도의 휴게실을 갖추는 등 수강생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기술 교육은 학생 및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센서, 제어기기, 시스템 부문 등 총 44개 기종으로 구성된 각 부문 대표 제품군의 데모키트를 이용한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며, 오토닉스 기술연구소의 베테랑 연구원 및 기술진에 의해 기초 이론부터 제

품의 원리 및 기능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실무에서 제품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토닉스는 동 교육관 운영을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축적해온 노하우와 성과를 실질적인 기술 교육으로 소비자에게 환원함으로써 산업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3월부터 시작되는 동 교육은 1회 20명 정원으로 매월 3회 이상 실시되며, 2월부터 오토닉스 홈페이지(www.autonics.co.kr)를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LG필립스디스플레이, TR AK 브라운관 1만대를 일본에 수출

LG필립스디스플레이가 2월 2일 일본 TV 제조업체 후나이(Funai)에 29인치 TR AK 브라운관 1만대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녀 수출하는 29인치 TR AK 브라운관은 LG필립스디스플레이가 지난 2004년말부터 마스크(Mask) 재료를 AK 재료로 대체하고 새로운 부품을 적용, 제품 품질을 개선한 것이다.

LG필립스디스플레이는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29인치 TR AK 브라운관 72만대를 수출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100만대와 200



만대 등 수출 물량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손정일 사장은 "21인치·29인치·32인치 슬림브라운관 개발 및 양산을 이루어낸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29인치 TR AK 브라운관 제품을 생산, 수출함으로써 늘어나는 시장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브라운관 선도업체로서의 강점을 활용해 수출을 더욱 가속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필립스디스플레이는 29인치 TR AK 브라운관 및 슬림브라운관(제품명 슈퍼슬림)을 통해 기존 브라운관의 대체 수요를 적극 공략,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과 신흥시장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을 중심으로 수출 및 판매를 늘릴 방침이다.

디보스, 3월 대구성서단지에 LCD TV 생산공장 준공

LCD TV 및 모니터 제조기업인 디보스가 오는 3월 대구시 달서구소재 성서 3차단지(구 삼성상용차부지) 내에 월 6만대의 LCD TV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디보스는 이번 공장 준공을 통해 지난달 계약을 맺은 미 PDI(병원 기자재 공급 전문기업)에 LCD TV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스위스와 프랑스 등 유럽지역 해외마케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장 신설로 생산시스템이 크게 개선돼 생산성은 물론, 품질과 재고관리, 원가절감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디보스는 최근 LCD TV분야에서 반도체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독일의 미크로나스(Micronas)사의 아시아연구소로도 등 록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